

연중 제30주일

기도서 P. 465 B해

제1독서(예 레 31, 7-9)
 제2독서(헤 브 5, 1-6)
 복 음(마 르 10, 46-52)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함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볼 수 있는 눈을...

서 석 기 신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눈, 애원의 눈, 총명스런 눈, 원망하는 눈, 살기뵈운 눈, 이렇게 우리는 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눈은 마음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속담에 "개 눈에는 X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하무인" - 교만한 자에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어떤 좋은 건축물 하나를 놓고서 미술가, 역사가, 경제가들이 본다면 그 보는 관점은 다 틀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미술적으로 어떻든가, 역사적으로 어느시대의 어떤 식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겠든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을 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과 통하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서양 말에만 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도 그렇게 널리 쓰고 있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잘 살펴라. 누가 그림 한폭을 사라고 가져왔는데, 네가 그림을 잘 볼 줄 알기 때문에 가져왔다. 누구나 눈을 가진 이상 볼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장사에 눈이 멎다는 등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눈은 가졌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차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눈의 두엇이 비칠까요. 개 눈에 X만 보인다고 그 눈에 비치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형제들을 보는 눈, 형제들에게서 주님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가 뜨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달려들어야 하겠습니다. 예리꼬의 맹인 마르티에는 마냥 염치와 체면을 불사하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민주주의 요구와 자전거와 뒷문 입학

—중공 소식 두 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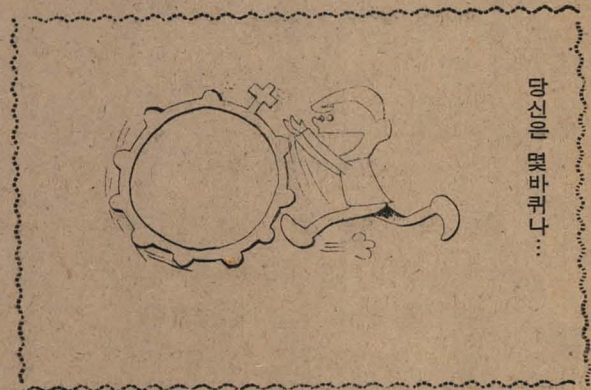
<北京 UPI 동양> 공산주의를 폐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과 현 중공정부 대신 자유중국 국민당정부를 북경에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大字報가 6일 중공상상 처음으로 북경시의 민주주의 벽에 나붙었다.

자신을 강소성의 한 농부로 자처한 킨 쑹 푸라는 이름의 필자는 이 대자보에서 자신이 과거에도 화국붕 수상에게 공산주의를 폐지,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려고 여섯번이나 북경을 방문했다면서 "10억 인구중 80% 이상을 집하는 농촌인구의 대다수가 공산주의가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런던 NOW지> 중공 수상 화국붕은 부인과 4자녀를 갖고 있는데, 부인은 북경의 한 국영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농부의 아내 같은 인상을 풍기는 화국붕의 부인은 흰색 노타이에 회색 바지의 치근히 수수한 차림이고 장신구는 반지조차 안끼고 있었다. 화국붕은 자기 부인의 근무처 직원들이 그녀가 중공 수상의 부인임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녀의 신분을 계속 모르기를 그녀는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국붕의 딸이 얼마전 대학 입학시험을 쳤다가 불합격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뒷문 입학을 예상로 하는 고급관리들과는 대조적으로 화국붕은 딸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다시 응시하라"고 타일렸다는 일화가 널리 전해지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중공문제 전문가인 펠릭스 그린의 중공 수상 화국붕과 단독 회견한 내용으로 영국의 주간지 NOW를 中央日報 런던 특파원이 소개한 기사의 요약임. 79. 10. 23字)

숲 정 이 산책



(2) 순 정 이

□ 10월은 전교의 달 □

교회 서적을 읽어 전교의 밑바탕을 다잡시다

◆ 미셀은 어디에

Y. R. 브뤼야르 지음, (이순희 옮김)
4,6판 307면 반양장 (1,100원)

내용 : 애뜻한 우정과 신앙에의 눈뜸 속에서 미래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출발하는 삶의 갖가지 모습이 감동깊게 그려진 청소년 소설. “꽃샘 잎샘 바람”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의 속편으로 청소년들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 씌어진 책이다.

◆ 성서연구를 위한 대화 주제

리날드 파브리즈 지음 (성 열 옮김)
3,6판 95면 반양장 (550원)

내용 :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에 해당하는 20개의 주제를 다룬 이 책은 성서모임의 복음의 연구와 사색을 위한 것이다.

먼저 성서의 본문을 정독하고 주해서를 참작하여 성서구절들의 참뜻을 찾아낸 후 복음적 안목으로 현실을 검토하고 반성케 한다.

젊은층의 성서연구 교재로 적당하다.

◆ 교회 반상회를 위한 대화 주제

이 상철 신부 지음
4,6판 92면 반양장 (300원)

내용 : 이 성서 연구 교본은 본당의 월례 반상회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성서의 주요 구절을 연구하고 배워 익힘으로써 성서를 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다.

◆ 하느님과 어린이(신약성서 시리즈 4)

G. 사찌코 지음 N. 유끼 그림 (장해균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원색의 예쁜 그림책

◆ 예수님의 힘(신약성서 시리즈 5)

N. 기요코 지음 H. 야수미찌 그림 (양승만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건강하고 씩씩한 바오로를 아파는 무척 사랑하셨다.

어느날 갑자기 바오로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자 아파는 예수님께 간청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낫게 해주신다. 어린이를 위한 원색 그림책

◆ 마지막 가르침(신약성서 시리즈 6)

M. 레이코 지음, S. 기미코 그림 (양승만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요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어린 형제들은 틈만 있으면 할아버지께 달려간다.

요한 할아버지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은 더욱 사이좋은 형제가 된다. 어린이를 위한 원색 그림책

◆ 경호의 기도(신약성서 시리즈 7)

M. 미찌 지음 H. 야수미찌 그림 (장해균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경호는 영수와 싸운 뒤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를 잘 알게 된다. 그때 사이 좋게 놀아요! 하는 소리가 어디인가 들려온다. 경호는 용기를 내어 영수와 화해하고 더욱 다정한 사이가 된다. 어린이를 위한 원색 그림책

◆ 그물 가득한 물고기

(신약성서 시리즈 8)

M. 레이코 지음 H. 야수미찌 그림 (장해균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밤새도록 애써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쳐보니 그물에 가득 넘쳤다.

깜짝 놀란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다.

어린이를 위한 원색 그림책

◆ 예수님은 어디에(신약성서 시리즈 9)

M. 가요코 지음 G. 사찌코 그림 (양승만 옮김)
4,6판 24면 호부장 (1,000원)

내용 :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싸여 숨어 있었다. 예수님은 어디제실까? 무덤 안에도 안제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제신다. 어린이를 위한 원색 그림책

◆ 하느님의 계시

신학전망 총서 10권 M. 슈마우스 지음

※ 박진량 신부 옮김(대진전대 교수, 본 교구 출신)

내용 : 신교 200주년을 앞두고, 성직자들의 독점물만이 아닌 신학에 대해 평신도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가 3천원)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은들 호남총판

이리 ㉠ 8629 ㉡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순수자연식품 청정 크로렐라

CHLORELLA-ONE

크로렐라-원

이서구(토마스 아퀴나스)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앞 3-9519
전주시 고사동 시민회관 앞 3-7898



현대인(現代人)의 특징

천교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전교대상인 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현대인의 특징>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현대인의 범주 안에 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편집자-

1.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은 인류 공동체라는 주체의식(同一性) 안에서 일치(全一性)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 모두가 하나의 공동운명과 공동책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현대인은 세속적 정신으로 세속(세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이 비신화화(非神話化) 되었으며 비신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오로지 세상 그 자체의 측면에서 이해할 뿐이며, 하느님의 측면에서는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3. 현대인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적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인은 세상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변형시켜 재구성해야 할 소재로 생각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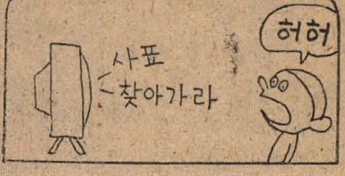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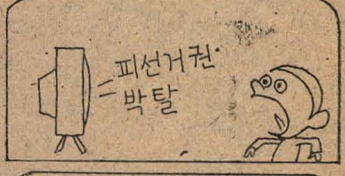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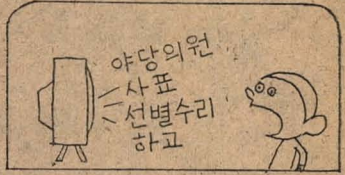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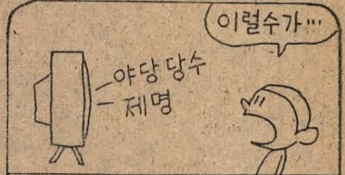
4. 인간은 자기 자신도 역시 인간의 창조적 변형의 대상으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인간은 새로운 인간, 초인간을 형성하려고 열망하고 있다. 그 새로운 인간 즉, 초인간에게는 고통도 죽음도 재앙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학과 심층심리학과 그리고 화학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의 전망을 인간에게 열어주고 있다.

5. 인간은 이러한 미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대인은 또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 알맞는 몇가지 덕성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진취적 기업정신·발명정신·주도권 신장·용기·관용정신·애타주의·동료의식·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신들이 그것이다. 세속적 인간은 능동적으로 우주 속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6. 이처럼 인간지배화한 오늘날 세상의 또 다른 특징적 요소들은 하느님께 대한 권태감, 불안감, 심지어는 적대감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기나를 때로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은 쓸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하느님께서 인간지배화한 이 세상에 계시다면, 그분은 인간과 인간 자유의 원수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이 대적하여 싸워야 할 적수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포이에르바흐와 막스의 철학은 오늘날도 여전히 폭발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 자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정신 생활 속에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자세들이 신자들의 정신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도전 내지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대 신학은 비신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상적 조류들을 고려에 넣고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느님의 계시(M. 슈마우스 지음, 박진량 신부 옮김)에서

요심이 (326)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열)

전화 ③ 6219

□ 남성의 맛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철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동력자원부 신규허가(제10호)

수복표 운수보일러 주철제

시공, 수리, 상담

全國總販(代理店 募集)

수복표 大同工業社

전화 ② 8661

대표 李仁石(미카엘)

□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E

순정이 음악사

홍지서림 남쪽편

전대수(베드로)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원규 (야코버)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화: ② 8653

□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결정,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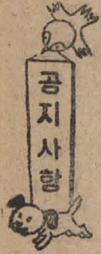
실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⑤ 5448 · ⑤ 107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1월은 위령성월
위령의 날(11월 2일)을 맞아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추계 사제총회...11월 5일
- 교리교사 종교 심포지움(본당·공소 합동)...11월 10일(토)~11일(일), 가톨릭 센터에서
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참가비: 전주(1,600원), 기타(1,300원)
-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시상식...28일 오후 2시 교구청 사무실에서
 - ☐ 순정이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 순정이에 <교리상식>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궁금하게 여기는 「교리내용」이나 「교회상식」, 「신자의 본분...교회법 관계 등」에 대해 먼저 질문해 주시면 답을 준비하여, 신년도부터 실고자 합니다. 편집 계획상 필요하오니 11월중으로 질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의평화를 위한 성금...성체수녀원 5만원, 덕진 3만원, 복자 익명 2천5백원
 -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덕진 부녀회 1만원, 복자 익명 2천5백원, 정태현신부 1만원, 남원 최분다1만원
 - ☐ 수재민을 위한 성금...팔마 3만원, 함열 4만원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오수해
보좌 신부 임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 축! 첫 영성체: 27일(토) 오후 4시30분
 - 어머니 합창단: 1일(목) 오전 10시30분
 - 성심부녀회: 2일(금) 어머니미사 후
 - 제 2차 성령세미나: 11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 성경, 성가집 할인판매
신약성경: 700원, 성가집: 1,300원 본당신자에 한함
 - 청년합창단 회원모집: 숨은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 고등학생 성가연습: 1일 오후 8시부터
 - 성프란치스코 3회피정: 11월 4일(일) 오전 9시~6시
장소: 강당, 회비: 1,000원
- ☐ 지난주 불헌금: 226,095원

- 회비-100원 이상
- 현양대회 기념목주 판매: 사무실-500원
군인들에게도 많이 보냅니다
 - 불헌금 미수 속히 완납바랍니다
- ☐ 지난주 불헌금: 211,50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홀인구

- 애령주일: 미사후 특별 위령기도
 - 부녀회·할머니회·어머니회: 10시미사 후
 - 수요기도회: 31일 밤 8시
 -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1일
6시미사에 꼭 나오세요
 - 위령의 날: 11월 2일
- ☐ 지난주 불헌금: 95,595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공록
사도 회장 김성록

-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각 분과위원장님은 해당부서의 신년도 활동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미납된 모든 단체의 간부님들은 10월말까지 완
납하십시오
 -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1월 2일 어머니미사 후
 - 축! 혼인성사: 다음주(11월 4일) 12시
신랑-장순상, 신부-최소피아(남림)
- ☐ 지난주 불헌금: 151,345원

(순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요안회 월례회·신협이사회: 10월 28일 공식미사 후
 - 주일학교 후원회 및 교리교사 야외친목회: 10월28일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구역장·반장님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미사시간 변경: 평일-아침 6시30분·오후 7시,
주일-아침 6시30분·주일 공식 10시·오후 7시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랄
 - 지난주 신축기금 내주신분: 익명·김용권·이운수·
송사차·이장진(각 10만원), 박병내(2만5천원), 김
숙자·장외선(각 1만원), 고채권·이강노(각 20만원)
양해방(5만원), 홍성조(550만원), 강호숙·김숙자(2
만원), 정길화·홍종식(각 30만원), 조마리아·전가
밀라·서울비오(각 5천원), 김숙자·김기순(각 3만
원), 김영진(50만원)
- ☐ 지난주 불헌금: 148,87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상

- 주님과 약속하신 교무금은 왜 미루시는지요?
본당 살림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복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80년도 사도회 각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바람
(11월 11일)
 - 미사시간 변경: 주일은 종전대로, 11월부터
평일-오전 5시30분에서→6시, 오후 8시에서→7시
 - 사도회장 선거: 오늘 공식미사 후
 - 위령의 날: 11월 2일
선영과 고령받는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한가정도 빠짐
없이 미사 불헌바람
 - 학생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8시30분, 미사후 교
리 학생들은 학생미사에 적극 참여바람
- ☐ 지난주 불헌금: 23,650원 교무금: 118,00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홍
사도 회장 유수홍

-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피정은 연기)
 - 사도회 임원 피정: 30일(화)~31일(수)
광주 피정의 집(각 신심단체장, 동 반장, 2시까지
전동성당 집합(시간 엄수))
 - 미사시간 안내: 평일-오전 5시반·오후 7시
주일-오전 5시반·8시반·10시·오후 7시
 - 예비자 교리: 학생-〈토〉 오후 4시,
직장인-〈수, 목〉 7시미사 후
일반-〈일〉 10시미사 후
- ☐ 지난주 불헌금: 266,06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초·중·고생 가을소풍: 10월 28일 오전 9시미사 후
장소: 관촌 사선대(도시락 지참)
- 영화상영: 11월 4일 저녁미사후, 제목: 구제주
- 예비자 교리시간 변경: 화요일 오후 7시30분
- 전교회 가입은 31일까지 접수합니다
회비-500원 이상, 특별회비-2,000원이상, 어린이

(파티마)

전화 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부녀회: 금일 공식미사 후
- ☐ 지난주 불헌금: 54,275원